

소규모 밀착형은 사회적 고립 막는 정책 시행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필요

서울노인 1인가구의 75%는 여성으로 '경제문제로 사회적 고립 위험 높아'

1인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형태 변화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서울이 당면한 큰 인구사회학적 이슈다. 서울시내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로, 특히 고령화 문제와 결합한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요 변화를 동반한다. 현재 서울노인 1인가구의 약 75%는 여성으로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사실상 여성노인 1인가구의 증가로 봐도 무방하다.

현 여성노인 1인가구 세대는 생애주기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여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고, 고립은 곧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여성노인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히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는 가족보다 넓고 친밀한 사적 관계망으로 삶 영위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자아중심 관계망 분석방법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였다.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가 중요한 문제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인은 평균 4.99명으로 밝혀졌다. 의미 있는 지인이 오직 한두 명뿐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 10명인 노인도 있다. 관계 유형별로는 혈연(50.6%)과 친구이웃 등 사적 관계(48.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비스 제공자(0.76%)가 뒤를 이었다. 가족을 의미 있는 지인으로 꼽은 노인은 절반에 불과했다. 의미 있는 지인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는 평균 4.04점(5점 만점)으로 분석돼 서울 여성노인 1인가구는 가족에 의존하기보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뢰도 높은 사적 관계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 따라 확장형, 중도형, 소규모 밀착형으로 분류 가능

여성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확장형은 세 집단 중 관계망 크기는 가장 크지만, 연락빈도와 믿고 의지하는 정도는 낮다. 소규모 밀착형은 관계망의 크기는 작지만 밀도와 신뢰도, 연락빈도는 가장 높고 생활관리사요양보호사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계망 내 의미 있는 지인으로 나타난다. 중도형은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고 관계망 유형이 다양한 다층형 집단이다.

관계망 유형은 연령·독거기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장형은 독거기간이 짧고 비교적 연령이 낮으며 주로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다. 주로 혈연관계의 지인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거기간이 가장 길고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여성노인 1인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밀착형으로 유형화된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밀착형: 기존 정책 적극 이용해 각종 사회적 모임에 참여 유도 필요

관계망이 좁고 제한적인 여성노인 1인가구 유형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모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핵심 문제는 건강이므로, 지역 사랑방 모임 등에서 건강체조, 간호사지역 의원 방문 상담 같은 사업을 실시해 모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고 일자리 사업 참여도가 높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원예·봉제·비즈 등 직업교육, 밥상나눔 같은 프로그램에 소액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확장형·중도형: 직접적 지원보다 관계망 유지 위한 간접적인 정책수단 활용

비교적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확장형과 중도형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형태의 정책 수단이 유용할 것이다. 정책을 시행해 직접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대상자를 발굴하기보다 현존하는 관계망을 유지해 독거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지인과 관계를 이어가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간접적 지원은 취미 생활, 인문학 강좌 등 프로그램 지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다.